

호소가 17예(37.8%)로 가장 많고 쇠골하동맥 천자 4예(8.7%), 삼입부 출혈 3예(6.5%), 삼입부 혈중 1예였으며 도관 제거시의 합병증으로 혈흉 1예, 도관파열 1예였다.

4) 도관유치 보존 기간중의 감염성 합병증으로는 *Staphylococcus epidermidis* 도관출구부 감염이 9예, *staphylococcus aureus*에 의한 출구부 감염은 1예였으며 혈액 배양 검사상 전신성 패혈증은 *E coli*에 의한 경우가 1예 확인되었다.

5) 장기 유치사용 중의 기계적인 문제점은 부분적 도관 폐쇄에 의한 혈류량 감소가 22예(47.8%)로 가장 많았으며 이중 동맥부 도관 폐쇄가 15예(32.6%)이고 정맥부 도관폐쇄는 5예(10.8%), 동정맥부동시 폐쇄도 2예 있었다.

이상의 성적으로 보아 쇠골하정맥 이중도관 삽입술은 정맥천자에 따른 기술적인 주의와 도관 관리에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면 단기적으로 반복되는 혈액투석치료에 안전하고 편리한 혈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 50 —

고출혈성요인 환자에서 Gabexate mesilate를 항응고제로 이용한 혈액투석 2예

고려의대 내과

정동국 · 권영주 · 김형규

기존의 혈액투석은 항응고제로 헤파린을 사용하며 고출혈성 요인 환자에서는 국소 헤파린 요법을 사용하나 Protamine sulfate를 이용한 정확한 항헤파린 효과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치요법으로 여러가지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 바, 연구자들은 비펩타이드성 단백분해효소리해제인 Gabexate mesilate를 항응고제로 사용하여 고출혈성 요인 환자 2예에서 혈액투석 총 8회를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1은 52세 남자로 만성 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중 갑작스런 의식의 소실과 좌측 반신마비를 주소로 내원하여 Brain CT scan 촬영상, 우측 기저핵부와 측두부 내측으로 심한 출혈 소견을 보였으며 입원하여 폐부종, 폐노, 고열과 함께 뇨검사상 단백뇨, 혈뇨, 혈액검사상

BUN 112 mg%, Cr 8.9 mg%로 질소혈증의 소견을 보였던 예였다. 증례 2는 49세 남자 환자로 간좌염을 침범한 원발성 간암의 부강내 파열로 진단되었던 예로, 입원 당시 지속적인 폐노와 부종, 혈액검사상, BUN 29 mg%, Cr 3.1 mg%로 만성 간질환으로 인한 2차적 신부전증의 양상을 나타내며, 증가하는 질소혈증 및 고칼륨혈증을 보여 역시 혈액투석을 시행하였던 예였다.

Gabexate mesilate의 투여방법은 체중 1kg당 2.5mg이하로 하였으며, 시간당 1,000~1,500mg의 속도로 생리식염수나 포도당 용액 500ml에 혼합하여 지속적으로 점적주입하였다.

이상과 같이 Gabexate mesilate를 항응고제로 사용하여 고출혈성 요인 환자 2예에서 혈액투석을 성공적으로 시행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51 —

Comparison of Trace Element in Uremia, Hemodialysis, CAPD and Kidney Transplantation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ollege
Seoul, Korea

E.J. Choi, S.Y. Kim, W.S. Koo, Chang
Y.S. Yoon and B.K. Bang

The plasma concentration of aluminum, zinc, copper, cadmium and manganese in control, in uremics, in hemodialysis, on CAPD, in kidney transplantation were measured to evaluate the clinical significance of these elements by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Plasma aluminum concentration in hemodialysis is increased significantly ($p < .05$), and that in CAPD is increased but not significant.

2)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plasma concentration of aluminum and the groups of amounts of ingested aluminum hydroxide.

3) Plasma concentrations of zinc are markedly

reduced in patient groups ($p < .005$), and that in patients in hemodialysis is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 with that on CAPD ($p < .005$).

4) Plasma concentration of copper are increased in patients with uremia, in hemodialysis, on CAPD significantly ($p < .005$), and in kidney transplantation but not significant.

5) Plasma concentration of copper in hemodialysis group is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 with that on CAPD ($p < .05$).

6) Plasma concentration of cadmium and manganese are not detectable in all subjects because of these levels of plasma are below 5 ug/dl.

의 경미한 변화는 foot process의 융합만이 있는 경우가 1예, mesangium이 부분적으로 증식되고 침착이 있었던 경우 4예, 미만성으로 mesangium의 증식과 침착을 보인 1예였다.

3) 조직검사를 시행한 9예 중 25주 이상 추적관찰된 경우는 5예로 IgG신병증 1예와 경미한 변화 1예는 각각 60주와 31주에 요검사를 정상화되었으나 경미한변화 중 다른 3예는 평균 92주까지 육안적 혈뇨가 계속되었다. 신기능이 악화된 경우는 없었다.

연자들은 이상의 결과만으로는 경미한 변화와 다른 병변의 예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경미한변화는 소성사구체경화증이나 IgG신병증에 비해 예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일측성본태성혈뇨에서는 반복될 진단적과정을 피하고 예후를 알기 위하여 신조직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52 —

일측성 육안적 혈뇨의 원인감별

서울의대 내과

김순배 · 한진석 · 김성권 · 이정삼

병 리 과

김 용 일

혈뇨의 감별진단에 있어 방광경검사를 통하여 일측성 혈뇨로 확인된 경우, 그 원인으로는 신동정맥누공, 신정맥류 등 혈관조영술을 통하여만 진단이 되는 경우와 일측성본태성혈뇨가 있는데 일측성 본태성혈뇨의 진단에 있어 신조직검사의 의의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었다.

이에 연자들은 1980년 1월부터 1987년 3월까지 서울 대학병원에서 방광경검사를 시행하여 일측성혈뇨로 확인된 환자들 중 병력, 이학적 소견 및 선별검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23명을 대상으로 신혈관촬영을 하였고, 그 소견이 정상인 환자들 중 9명을 대상으로 신조직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신혈관촬영에서 이상이 있었던 경우는 3예로 신동정맥누공이 2예, 신정맥류가 1예 있었다. 신정맥류로 밝혀진 환자는 4년전에 간경화증으로 진단되었었다.

2) 일측성본태성혈뇨 9예에 대해 시행한 신조직검사에서 소성사구체경화증이 1예, IgG신병증이 2예였으며 6예는 경미한변화(minor change)가 관찰되었다. 이 6예

— 53 —

소아 신사구체 질환에서 T-임파구 및 B-임파구의 역할

연세의대 소아과

이 종 균 · 김 병 길

1974년에 Shalhoub가 미세변화 신증후군의 병인론으로 세포성 면역 장애에 의한 가설을 제시한 이래, 각종 사구체질환의 발생에 세포성 면역에 관계되는 T-임파구의 장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연자들은 미세변화 신증후군을 포함한 각종 사구체 질환에서 T-임파구 및 B-임파구를 측정하여 이들의 면역학적 역할에 대한 규명을 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T-보조 임파구 및 T-억제 임파구의 변화와 각종 사구체 질환의 발병과의 연관관계에 대한 고찰을 시행하였다.

저자들은 1986년 3월부터 1987년 2월까지 만 1년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 세브란스병원 소아과에 각종 사구체 질환으로 입원한 58예의 환아와 미세변화 신증후군의 관해상태에 있는 환아 14예를 대상으로 한 총 72예의 환아에서 단세포군 항체를 이용하여 T-임파구 및 아집단과 B-임파구를 측정하였고 동 기간 중에 15예의 대조군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각 임파구를 측정하여 통계적으로 고찰을 시행하였다.